

첨단 롯데슈퍼에 49층 주상복합 추진

신축건물에 주거시설·영화관·마트 등 입점 롯데측, 사업안 제출... 현재 광주시 심의중 상인들·정치권 “골목상권 침해” 한 목소리

광주 광산구 쌍암동 롯데슈퍼 점단점 자리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추진된다.

롯데 측은 아파트와 영화관, 마트 등을 갖춘 계획으로 광주시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대기업의 세 확장이 인근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점저지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대책위를 꾸리고 상인, 주민, 롯데 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광주시에 의견을 전달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

과 롯데슈퍼는 광산구 쌍암동 654-2번지 등 6개 필지 8천779㎡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신축 계획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말 광주군에 제출했다.

사업 부지는 현재 롯데슈퍼 광주 점단점으로 오는 5월까지 영업을 종료한 후 신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한다. 주상복합건물에는 84㎡형 아파트 414가구와 롯데시네마, 롯데슈퍼 등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대형 쇼핑몰 입점에 거론되고 있다.

광산구는 롯데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거쳐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심의 등 3단계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롯데가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교통혼잡,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빗공해, 안전문제, 학교 등 교육여건 미흡 등이 우려되는데다 사업 진행 과정 역시 불투명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조만간 입점저지대책위를 꾸려 반대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광산구를 지역위원회로 대체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수렴해 지역위원회의 입장을 결정한 뒤 광주시에 종합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산구를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첨단1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당 소속 해당 지역구 시, 구의원들과 첨단비상인연합회, 패션의거리상인연합회, LC타워상가

관리단협의회 등 인근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와 광산구 관계 공무원도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광산구를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 추진 사실을 확인한 이상 직접 이해당사자인 인근 상인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주최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지역위의 공식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이 성사될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 주민, 상인, 롯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중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통합뉴스룸-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조익문 감사(왼쪽에서 5번째)와 조영호 감사실장(맨 오른쪽), 윤태경 감사총괄부장(맨 왼쪽)이 KRC 청렴음부즈만 위원회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 청렴도 국민 눈높이 맞춘다

'KRC 청렴음부즈만 위원회' 발족 전문가·시민 주도 협의 체계 구축 감사 컨설팅·혁신과제 점검 등 활동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나주 본사에서 'KRC 청렴음부즈만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위원회 발족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청렴도는 높이고 부정부패와 관행적 업무처리 없는 것 위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지역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 동안 ▲감사 컨설팅 ▲감찰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민원 심의 등 감찰행위 근절·상생문화 구축 ▲청렴계약감시 및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혁신과제 심의·조정·권고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또 보다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당한 감사'라는 모토 아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감사원이 시행하는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공기업·준정부 기관 부문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익문 상임감사는 “청렴음부즈만 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청렴도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대농어업인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시 및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출활력 촉진단 광주 수출지원 설명회' 행사를 열고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무역협회, 수출활력 촉진단 광주 수출지원 설명회

지역 100개 기업 참가...민관합동으로 맞춤형 상담회 등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2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및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출활력 촉진단 광주 수출지원 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10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기업 수출

에도 해소와 맞춤형 현장지원에 초점을 맞춰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맞춤형 1:1 상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정부부처, 수출유관기관, 기업대표 등이 참가해 금융·기계·전자·소재·화학 등 지역 주요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또 설명회는 무역협회, 광주테크노파크 등 10개 수출유관기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출자금융자사업 ▲수출전문 컨설팅지원사업 등 당장 이용가능한 핵심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50여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유관기관들의 집중 상담도 이뤄졌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올해 광주는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수출산업의 부진에 상대 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현장기업 수출활력 제고활동을 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체계적으로 광주 수출기업의 애로를 모니터링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하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창원부터 시작된 수출활력 촉진단 행사는 광주에 이어 21일에는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우 에어컨 '클라쎈' 신제품 출시 고효율 벽걸이...1인 가구 등 공략

대우전자가 전모델 상·하·좌·우 4면 입체냉방 기능을 적용한 2019년형 '클라쎈'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정속형과 인버터형 전모델에 '4D 맥스(Max) 오토스윙' 기능을 적용해 상·하로만 풍향 조절이 가능했던 기존 벽걸이 에어컨과는 달리 상·하·좌·우 4면 입체냉방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앤 점이 특징이다.

또 '에코 기능'을 적용, 사용 환경에 따라 냉방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비효율적인 전력소모를 제어해 효율적인 전기료 절약이 가능하며, 안티더스트 필터(Anti-dust filter)를 장착, 생활먼지를 보다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리모컨 내부에도 온도센서를 채용, 최대 8m까지 온도 감지가 가능한 '리모컨 온도감지 기능'으로 본체 주변이 아닌 사용자 주변 온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여러 코드 확인만으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에어컨 설치시 실내기와 실외기 간 연결배관에 동(銅) 소재 관을 적용, 내구성을 보다 강화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마이크로LED 광특성 분석 현미경 시스템 최초 개발

한국광기술원·한국산업기술대·㈜리암솔루션 공동 산·학·연 협력 성과...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안현호), 광학기계 및 현미경 전문 업체인 ㈜리암솔루션(대표 김진철) 공동으로 장초점 대물렌즈 기반 마이크로LED 광 특성 분석 현미경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광 융복합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결과물이다.

최근 'CES 2019'에서 4K 해상도를 구현한 마이크로LED 적용 75형 스크린이 공개되는 등 고해상도 구현을 위해 칩(화소) 크기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지만 마이크로(micron) 단위의 칩은 기존의 실체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초점 대물렌즈를 이용한 마이크로LED 특성 분석용 현미경이 개발됨에 따라, 마이크로LED 광 특성 분석 및 이미지 관찰 등

에 상당한 연구진전이 기대된다.

마이크로LED 광 특성 분석 현미경 시스템은 칩의 발광상태와 발광면의 광 전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칩의 상하부를 모두 관찰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시료를 움직이지 않고 상부와 하부의 관찰 위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렌즈 정렬이 포함한 광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광기술원 백종협 본부장과 김삼복 박사팀은 시료관찰을 위한 광기구를 설계와 상하부 렌즈 정렬을 위한 모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경국 교수와 김윤석 교수는 광 특성 분석을 위한 해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리암솔루션은 장초점 기반의 현미경과 광특성 분석 장치, 이미징 장치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최초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 중이며, 마이크로LED 연구기관과 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진철(㈜리암솔루션 대표)은 “이번에



장초점 대물렌즈를 이용한 마이크로LED 특성 분석용 현미경

개발된 시스템은 마이크로LED 칩 특성 분석을 위한 필수 제품으로, 제품 개발 완료 전 판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향후 자동차 시스템까지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국립광주과학관이 학생들로 구성된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3기'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루체스타 우수단원 학급 초청행사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모집

초등4학년부부터 중·고교생 대상 3월1일부터 선착순 100명 선발

국립광주과학관이 학생들로 구성된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3기'를 모집한다.

'루체스타'는 광주의 지역대마인 빛을 의미하는 '루체(Luce)과 별을 뜻하는 '스타(star)'의 조합어로 과학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상징한다. 지난해 2기 66명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최우수활동 단위에 광주시장상을 수여하는 등 광주 지역 대표 청소년 과학문화 확산 대의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루체스타 3기'는 오는 4월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말까지 8개월간 국립광주과학관의 홍보대사 활동(온라인·학급),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콘테스트, 미션참여 등의 특별 활동으로 창의력과 기획력 경연을 펼친다.

올해는 대상을 광주는 물론 전남·북지역까지 호남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택도 풍성하다.

루체스타 단원은 매월 1회, 동반 4인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 특별전시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특수영상관까지 무료 관람 범위를 확대했다.

또 단원에 한정해 월 1회 과학교실 무료 교육 참여 혜택도 주어지며, 우수 단원의 학급 초청행사도 4개교로 확대한다. 여기에 봉사활동 인정시간도 지난해 13시간에서 올해는 총 2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중·고등학교 10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국립광주과학관 홍보실(062-960-6171)로 하면 된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